

형식적인 소독에 그치고 있다

소독이란 병원균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병원균을 박멸하거나 병원균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거해주는 일이라고 본다.

닭에 있어서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충성으로 인해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병원균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나 나쁘나에 따라 질병발생율이 결정되고 있다.



△소독은 계사내 뿐만 아니라 외부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취재/김용화 기자

최근 종계의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에 맞추어 경기일원 및 충청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규모의 종계장을 직접 탐방하여 종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독방법을 살펴보았다.

일단 우리나라 종계장의 평균 사육수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P종계장은 농장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농장출입에 관여하는 차량은 물론 사람까지 일단 소독을 하고 있긴 하였으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자가 사람일 경우 신발이 젖을까봐 우회하여도 방관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성 병원균은 공기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일단 매개체가 특정 물건인 경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병원균을 전파시킬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이다.

2만수 이하 종계장과 5만수 정

도의 종계장의 소독방법은 매우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요즘은 육계병아리가격이 비싸서 적은 규모의 종계장은 산란율 30~25%까지도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사를 비워둘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는 반면 규모가 큰 종계장은 사업의 지속성상 신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개월(산란종계), 16개월(육용종계)이 좀 지나면 도태하게 된다.

일단 계사가 비워지면 케이지사의 경우 계사내 먼지를 제거하는데 주로 거미줄에 분진이 많이 붙어 있어 아주 깨끗하게 떨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농장이거나 사양관리를 계획대로 하지 않는 농장 또는 인력난을 심하게 겪는 종계장들은 대충대충 큰 먼지만 제거해 내고 있다.

일단 먼지를 제거하면 물론 세척을 하여 천정부터 바닥 또는 스크래퍼가 설치된 하단부 홈까지 완벽하게 먼지부터 계분을 포함한 오물을 제거하는데 소규모일수록 물청소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물청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고압의 분사기로 구석구석 세척을 하는데 케이지 사이에 붙은 계분은 물에 불려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으로 물을 뿜어내 이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물청소가 끝나면 이어 소독액을 물에 희석시켜 고압으로 계사내는 물론 외부까지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크지만 겨우 계사내부만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종계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제는 보통 알칼리성을 띠는 4급암모늄제제를 상품화한 것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쓰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여름철과 같이 환기가 좋아 건조가 쉽게 되는 때는 물청소후 아무런 무리가 없으나, 보온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건조에 애로사항이 있어 오히려 닦이지 않은 오물이 더 쉽게 부패할 요인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육용계 7만수 정도를 사육하는 G종계장의 경우에는 일단 먼지제거, 물청소, 물소독을 실시한후 계사내가 완전히 건조해지면 바닥부터 벽면까지 생식회를 발라 주어 계사내에서 상존하고 있는 병원체를 일단 완전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여 1개월에서 1개월반을 완전히 비워두고 있는데, 최근에 종계장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산란율 저하문제로 고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각종 질병예방 프로그램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번 종계장 방문에서 느낀 것은 10여군데중 2군데서만이 출입절차를 받았을뿐 나머지는 용건만 대면 아무런 소독도 없이 농장을 마음대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한가지 예로 호주에 있는 국제적인 종계장은 30만평 규모에 8개의 종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종계장 단위로 다시 8개 블럭으로 되어 있다.

블럭마다 2주차로 입주가 되는 데 블럭마다 올인아웃 사육방식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농장관리자도 1일 1농장(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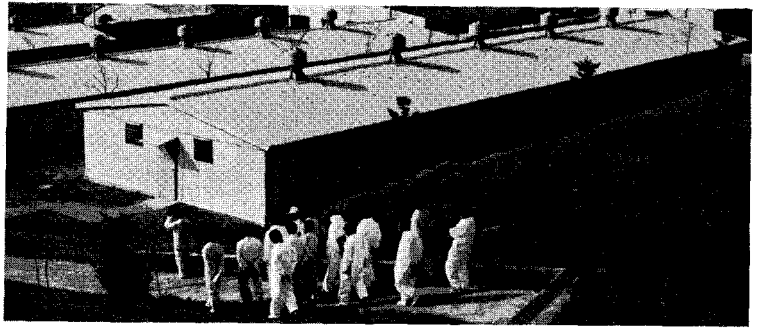


밖에는 출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생복 착용은 필수적이고, 농장관리자는 집에서도 일체 다른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약정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농장 관리자가 농장 출입시 반드시 샤워를 하고 농장복으로 갈아입고 출입하게 되어있으며 철저히 행해지고 있다한다.

소독약은 대개 햇빛에 노출되면 살균지속성이 3일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냄새만 풍기는 식의 소독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종계장은 실용계농장과 50m이상 거리를 두게끔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가 하면 종계를 사육하면서 옆계동에 실용계를 사육하는 곳도 있어 한시바빠 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소독효과를 좌우하는 요인을 살



△종계장 출입시에는 완벽한 소독과 질병유입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펴보면 소독약은 물에 희석하는 배수에 따라 소독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희석하는 소독제의 양이 많으면 소독력이 높아진다.

온도에 있어서는 40~50℃ 정도일 때에 가장 살균력이 높는데 온도가 너무높으면 증발현상이 일어나 효력이 떨어지므로 여름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소독약은 산도(PH)가 변하면 효력도 변하는데 일반적으로 염소계제는 산성에서 효력이 강하고, 알칼리성에서는 효력이 저하된다. 축사내의 산도는 계분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의 영향으로 다소 알칼리성이 높으므로 (PH7~9)계사내의 소독약은 알칼리성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또한 유기물은 세균을 소독약으로부터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고 소독약의 입자를 흡착시키기 때문에 약제의 농도가 낮아져 소독력이 떨어지게 된다.

요즘음 같이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때에는 소독약의 농도를 진하게 하면 효과가 높아진다.

소독은 예방차원이다.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질병발병이 그만큼 높아질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종계장이 질병발생이 많다고는 하나 일단 일반적인 소독부터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질병이 발생하면 생산성이 저하되어 수익성 없는 경영은 물론 다른 양계농장에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소독은 닭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양계**



△농장 위치상 외부와의 차단이 어렵게 된 곳이 대부분이다.